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Wednesday 10 May 2017 (afternoon)

Mercredi 10 mai 2017 (après-midi)

Miércoles 10 de mayo de 2017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Question 1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Question 2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Choose either question 1 or question 2. Write one comparative textual analysis.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La question 1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La question 2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Choisissez soit la question 1, soit la question 2. Rédigez une analyse comparative de text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n la pregunta 1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n la pregunta 2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lija la pregunta 1 o la pregunta 2. Escriba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os textos.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문제 1이나 문제 2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 1. 다음의 두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교·대조하십시오. 두 텍스트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논하고 또한 문맥, 독자, 목적, 형식과 문체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논하십시오.

텍스트 A

## 인천송천고 ‘아버지의 날 세족식’



송천고 아버지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가 세족식을 하며 부자지간 정을 나누고 있다. 송천고 제공

### “아버지 발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가족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고단한 발 씻어드리며 아이들  
눈물이 ‘주르륵’.

“아버지의 발이  
이렇게 작고 하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인천 송천고등학교가  
마련한 ‘아버지의 날’  
세족식에서 성연빈군(18·2  
년)은 생전 처음 아버지의  
발을 씻겨 드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성태현씨(46)  
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의  
손이 자신의 발을 어루만지는  
순간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쉼 새 없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 주마등같이  
너리를 스쳐가 가슴이 북받쳐  
올랐다.

송천고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부자(父  
子)가 함께하는 ‘아버지의  
날’ 행사를 마련, 5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생각을  
알아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인 줄넘기, 단체  
줄넘기, 2인 3각 달리기 등  
스포츠 힐링 캠프는 아들과  
땀을 흘리며 부자지간 정을  
나누기에 충분했고, 아버지의  
발을 씻겨 드린 후 뜨거운  
포옹으로 마무리한 세족식은  
보는 이를 숙연하게 했다.

송천고는 Family  
Designer 강사를 초대해  
부모의 신분과 역할, 자녀 간  
소통 문화를 만드는 강연을  
마련해 아버지들의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아버지께  
평소 하지 못한 말을 편지로  
전달했다.

송천고 이광석 교장은  
“어버이날에 즈음해 아버지의  
날 행사와 인근 어르신들  
모신 경로잔치,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등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다”며 “경로효친의  
자세를 키우고 실천하는  
효행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호응도가 해마다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텍스트 B

일곱 번째 은혜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신 은혜

5 자식들 씻겨 거두시느라  
 뚜렷이 질던 눈썹 희미해지고  
 발그레 곱던 뺨은 쭈글쭈글.  
 꽃꽂이 가늘던 허리는 굽고  
 흠 없이 매끄럽던 손은 거칠거칠.  
 아들딸 키우고 가르치느라  
 10 젊고 곱던 어머니 모습  
 하루 또 하루 시들어 가네.

<중략>

아홉 번째 은혜

자식 위해 온갖 고생 하시는 은혜

15 자식이 피로우면 아버지 더 괴롭고  
 자식이 고생하면 아버지 더 슬프니  
 아들딸 잠깐 겪는 고생에  
 아버지 마음은 오래도록 아프시네.  
 멀리 있는 자식 소식을 들으시면  
 20 밤늦도록 서성이다 찬 바닥에 누우시고  
 배고플까 추울까 험한 길도 마다 않고  
 먹이고 입힐 것 이고 지어 나르시네.

<중략>

25 아버지 살아생전 그 은혜를 갚고프나  
 굶주리는 아버지께 제 살을 도려내어  
 백천 번을 드린들 다 갚지 못한다네.  
 추우신 아버지께 제 몸에 불을 붙여  
 백천 번을 쪼 드린들 다 갚지 못한다네.  
 늙으신 아버지를 양 어깨에 들쳐 업고  
 30 아름다운 수미산을 구경 시켜 드리고자  
 백천 번을 돈다 한들 다 갚지 못한다네.

35 그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서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정성껏 사랑하면,  
 이 세상 마친 뒤 하늘에 올라  
 그리운 아버지 다시 뵈옵고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으리.



이상희 글, 광영권 그림, <날으실 제 피로움 다 잊으시고> (2007)

Please **do not** write on this page.

Answers written on this page  
will not be marked.

2. 다음의 두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교·대조하시오. 두 텍스트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논하고 또한 문맥, 독자, 목적, 형식과 문체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텍스트 C

## 교실 복도에 ‘그림·색깔’ 입혔더니...



여름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복도를 꾸민 서울 노원구 녹천초등학교(왼쪽)와 복도에서 착시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양천구 금옥중학교. 서울시 제공

## 학생들 집중력·주의력 높아졌어요

서울시·교육청 ‘컬러컨설팅’ 학교 복도 색이 바뀌면 학생들의 집중력과 주의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 교육청과 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시범사업을 했던 12개 학교 중 6곳의 학생 145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 공격성이 줄거나(68%), 싸움이 줄어들어(60%) 효과를 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벽화를 그렸던 우장초등학교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뇌파 검사에서 주의력(40%)과 집중력(27%), 휴식력(21%)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 학교는 공사 때문에 운동장을 쓸 수 없었던 때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가던 인근 우장산과 학교 안 연못 그림을 조도가 낮아 어두컴컴한 복도와 계단에 입혔다. 차의과대 임상미술치료대학원팀의 조사에서 우장초 학생들은 감성 역시 ‘우울함’보다 ‘활기참’이 강화된 것으로 나왔다.

색을 입힌 학교 중에는 학업성취를 고려한 곳도 있다. 똑같은 교실에서 모든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교과목별로 선생님에 따라 교실을 이용하는 봉화중학교는 과목별로 색깔을 바꿔서 교실과 복도를 꾸몄다.

음악·미술실이 있는 예체능 구역은 감각과 정서를 자극하는 붉은색을 썼다. 영어교실이 있는 쪽은 국제적인 느낌을 주는 노란색, 인문·사회과목 교실이 모인 곳은 차분한 녹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자연·과학·컴퓨터 과목을 배우는 구간은 창의력을 자극하는 파란색으로 특징을 잡았다.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착시현상을 복도에 구현해 학생들의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 금옥중학교는 복도에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미로와 벽이 확장돼 보이는 착시 그림을 층마다 그렸다. 길음중학교는 학교 이름의 초·중·중성에서 따온 한글을 디자인으로 만들어 복도 색칠을 했다.

녹천초등학교는 건물이 ‘口’자 형태여서 저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각각의 면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 낙엽과 별자리 등의 그림을 그렸다. 매년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는 올해 5개 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벽화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동섭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학교는 한번 칠한 벽면이 15년간 유지된다”며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학교의 벽은 장기간 학생들의 행동,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김보미 기자, 경향신문 (2015)

텍스트 D



**THE HAPPYBEANS STORY**  
당신이 있어 따뜻한 세상, 해피빈

BY 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

“어려서부터 조금 특별했던 아이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남다른 외모와 행동 그리고 말하는 게 조금 다를 뿐인데,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과 쏟아지는 편견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듯 자기 자신의 몫으로 다가왔지요.

- 특히,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에 그곳에서 겪는 아픔도 많습니다.
- 5 함께 어울리지 못해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외로움과 위축감으로 또래 친구들과처럼 평범한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 아동은 비단 그 아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 주지요.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는 고통의 깊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작된 모금함”



클릭 시, 해당 모금함으로 이동합니다.

- 10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자 해피빈에 모금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4,566 명 기부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908,600원의 소중한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 수많은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그 밝은 에너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아파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 15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네요.”

- 아니토 님의 댓글 -

20 여러분 덕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장애 아동 3명과 그 형제 1명이 대상자가 되어 4달 동안 색채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을 위로받고, 자유롭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며 자존감을 회복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이**

25 “뒤죽박죽 어지러워요. 집중해서 뭔가 해보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안돼요.”

아이는 자신의 마음과 주변 환경의 표현을 파스텔로 거칠게 칠하고, 손으로 문지르면서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뒤죽박죽 어지러워요. 집중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도 마음처럼 잘 안돼요.”

이 아이의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30 학교의 공동체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늘 꾸중과 부정적인 언어만 들어서인지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자신의 답답하고 화가 났던 기분을 부드러운 촉감 재료인 파스텔을 통해 마음껏 발산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자유가 허락된 이곳에서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35 “색이 얼마나 아이를 변화시키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색과 무늬로 복잡했던 아이의 마음이 점차 정돈된 모습을 보였고 잠시도 가만히 있기를 어려워했던 아이가 차분하게 집중해 작업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속상했지? 괜찮아, 그랬구나, 잘하고 있어!”**

40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는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10회기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두들 표정이 밝아졌고, 내면 깊이 숨겨져 있던 감정과 마주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아이들 안에 무한히 내재되어 있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45 2015년 프로그램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2016년 2월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공동체와 색채심리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후기는 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 2016년 기본 모금함의 모금 후기를 통해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은 아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크레용, 물감, 색연필 등의 다양한 그림 재료와 창작 재료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회복할 수 있게 돕는 NGO 단체입니다.

50 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의 정기후원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